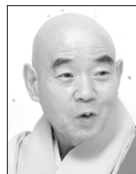


일주문



공생선원 6주년 법회서 법문
중앙승가대 총장 종범 스님은 9월 28일 오전 10시 30분 서울 공생선원 개원 6주년 기념 초정법회에서 법문한다.



법왕사 백고자 회향법문·수계식
해인사 율주 종진 스님은 9월 30일 오전 11시 대구 실상사에서 백고자대법회 회향법문 및 보살계 불명수지 법회를 주관한다.



광동학원 '학교숲 운동' 시작해
광동학원 이사장 일민 스님은 9월 24일 경기도 남양주시 광동중학교에서 '학교숲 운동'을 개회한다.



법흥사 10만등 점등법회
영월 법흥사 주지 도원 스님은 10월 17일 영월 법흥사에서 10만등 점등법회 및 흥원 원 개원식을 봉행한다.



상도선원 '마음수행학교' 개최
서울 백운암 상도선원장 미산 스님은 9월 18일~12월 6일 매주 목요일 오후 7시 30분 '마음수행학교'를 연다.



불교전통의식교육원 의식교육
불교전통의식 교육원 원장 원명 스님은 9월 24~28일 불교전통작법 구간에 대한 의식교육을 실시한다.



'행복나눔 한마음대축제' 개최
광진노인종합복지관 관장 화평 스님은 9월 30일~10월 24일 '2008 행복나눔 희망광진 한마음 대축제'를 개최한다.



대전파라미다 간부수련회 개최
대전파라미다청년소년협회 회장 선오 스님은 9월 6~7일 천안 광덕사에서 대전파라미다 중·고 간부학생 40명을 대상으로 간부수련회를 실시했다.



제17회 행원문화상 시상식
행원문화재단 주영운이사장은 9월 24일 역삼동 대려도에서 '제17회 행원문화상 시상식'을 개최한다.



12연기와 위빠사나 수행 토요일반
서울 한국위빠사나선원 원장 묘원 법사는 10월 4일 토요일 저녁 6시부터 '12연기와 위빠사나 강좌'를 개강한다.

“만암·서용 스님 연구소 건립해 참사람운동 이어”

고불총림 백양사 신임주지 시몽 스님

“만암·서용 스님 연구소 건립과 도심 속 포교로 참사람 결사 정신을 이어받겠습니다.”

9월 17일 조계종 총무원에서 제18교구본사 고불총림 백양사 신임주지로 임명된 시몽 스님(사진)은 “근대 대중불교의 태두인 참사람 결사의 정신을 잇고, 만암·서용 스님 연구소 건립으로 업적과 의의를 부각시키겠다”고 밝혔다.

“한국 불교는 산중불교인 조선불교의 한계를 벗어나, 신라·고려 불교의 대중성을 찾아야 한다”고 밝힌 시몽 스님은 “근대불교 100년 역사에 만암 대종사가 말로 대중의 사표(師表)이신 분이요”며 “만암 대종사의 업적이 다소 저평가됐다. 그분의 정신과 업적을 분발하는 것이 백양사가 나아갈 길”이라고 비전을 밝혔다.

이어 “참사람 결사 활동이 서용 스님 타계 후 지속되지 않았다”며 아쉬움을 표한 시몽

스님은 “대중불교를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대중과 가까워져야 한다. 대중과 떨어진 근본적인 한계를 벗기 위해 사찰 운영방식이나, 주거환경부터 개선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백양사 본사는 수행·연구 중심으로 말사와 지역 포교당은 대중 포교 중심으로 탈바꿈한다는 복안도 밝혔다.

시몽 스님은 주지직무대행으로 논란의 한 가운데 있었던 2007년 제주 관음사 사태에 대해 “사찰분규로 신주지·구주지간의 불협화음과 충돌이 일어난 일은 한국불교 역사에 또 다른 교훈을 준다. 직무대행으로 막중한 책임감을 느끼고 임했다”며 “현재는 관음사 사태가 정리 되어 다행으로 생각하고 제주 불교가 아픔을 딛고 더욱 번창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시몽 스님은 1950년 태어나 1965년 백양사에서 서용 스님을 계사로 사미계를 수지하고, 1969년 통도사에서 월하 스님을 계사로 구족



계를 수지했다. 은사는 상현 스님이다. 1975년부터 제주 법화사 주지를 역임하고, 2007년 제주 관음사 분규 때 주지직무대행으로 3년 임명돼 사태수습에 나선 바 있다.

노덕현 기자

“천안 문화도시로 육성”

천안문화원장 선출된 법혜 스님

“역사적으로 지리적으로 우수한 문화 기반을 가진 천안 지역을 최고의 문화도시로 만드는 데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9월 10일 천안문화원장에 선출된 법혜 스님(한민족평화포럼상임의장)의 일성이다. 스님은 고향인 천안에서 문화 활동과 지역봉사활동 해외한민족들과의 문화교류와 지원 사업을 전개하는 한민족평화포럼 운영 등을 활발하게 전개해 왔다.

“삶과 문화는 둘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지역문화원은 시민들의 생활과 결부되는 문화운동의 선두가 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천안지역의 여러 장점을 삶의 원동력으로 만드는 문화운동을 전개하기 위해 다양한 방안을 모색하고 있습니다.”

법혜 스님은 천안문화원을 시민들에게 개방하고 각종 참여 프로그램을 운영해 역동적인 문화원으로 만들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임연태 기자

“다양한 법회·시민선원 운영으로 포교”

취임 100일 맞은 조계사 주지 세민 스님

불교 1번지 조계사 주지 세민 스님이 9월 11일 취임 100일을 맞았다. 스님의 주지 취임 후 100일은 다사다난했다. 취임 후 시작된 조상전도법회 봉행으로 불교계 안에서 이견이 대두됐다. 조계사에서 농성 중인 촛불시위 수배자들은 불교계 밖의 이목을 조계사로 한층 더 집중시켰다. 더욱이 이명박 정부의 종교편향 논란이 핫이슈로 떠오르면서 조계사는 줄곧 뉴스의 중심에 서 있었다.

세민 스님이 말하는 조계사의 현안은 무엇일까? 스님은 “조계사 주지 부임 후 가장 시급한 문제는 부채문제였다”고 말했다. 은행대출 65억5000만원과 시민선원공사 대금 7억7000만원이 남겨진 상태에서 문제해결을 위해 스님이 행한 방편은 조상전도법회 봉행이었다.

“343일 서울 한복판에서 조상전도법회를 봉행해 부채문제를 해소하겠다고 하자 다소 잡음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조계사를 위해 중요한 불사라 생각하고 추진했어요.”

처음 조상전도법회를 봉행하자 신도를 비롯한 조계사 대중들 중에는 “원신원사 복원을 위해 조계사 시주금을 가져가려는 것이 아니냐” “수행도량에서 천도재가 웬말이냐” 등 비판하는 이들도 있었다.

스님은 “조계사의 미래를 위해 중요한 불사라는 점을 인식하고, 조상전도도 수행의 방편인 것을 이해한 신도들이 부정적인 견해를 털어버리고 적극 동참해줘 부채 17억7000만원

을 갚았다”고 설명했다.

“20만명 이상 불자들이 운집했던 법불교도대회에 조계사가 일익을 담당해 보람이 컸다”는 스님은 조계사를 포교1번지로 거듭나게 할 비전을 갖고 있음을 거듭 강조한다.

세민 스님은 “초하루법회 외에 다른 법회가 활성화되지 못했다”며, “조계사 삼존불(석가모니불, 약사여래불, 아미타불)과 관세음보살, 지장보살에 기도하는 정광재일법회 등 여러 법회를 활성화해 포교를 극대화하겠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조계사는 시민선원을 이용한 참선프로그램 운영 등 다양한 포교 방편도 마련 중이다.

스님이 제시하는 조계사 비전은 2010년 조계사 창건 100주년 기념행사를 여법하게 봉행할 수 있도록 조계사 발전에 장애되는 모든 문제를 불식하고, 제2의 도약이란 기쁨을 마련하는 것이 핵심이다.

세민 스님은 “조계사에 하루 종일 기도와 염불소리가 끊이지 않고 있다”며, “한국불교 포교1번지로서 소임을 다할 것”이라 다짐했다.

조동섭 기자

조계종, 중국불교협회에 성금 1억원 전달



조계종 총무원 사회부는 9월 9일 중국불교협회에 스한성 지원 구호 성금으로 1억원을 전달했다. 이날 전달식에는 사회국장 재경 스님, 중국불교협회장인성 스님 등 스님과 신도 30여명이 참석했다.

생명나눔실천본부 조혈모세포 기증캠페인



생명나눔실천본부(이사장 일민)는 가을 학기를 맞아 9월 10~11일 한국외국어대학교, 아주대학교 등 대학가에서 조혈모세포 기증희망등록 캠페인을 진행했다.

선본사 산사음악회서 ‘국민화합’ 발원



팔공산 각비위로 유명한 경산 선본사(주지 행적)는 9월 19·20일 제9회 산사음악회를 성료했다. 다례봉행을 시작으로 인드라 스님, 주현미, 조항 조 등 가수를 초청해 국민화합을 발원했다.

기허당 영규 대사·중봉 조현선생 추모제향



의승장기허당 영규 대사 및 중봉 조현선생 추모제향이 9월 17일 육천 기산사(주지 지승)에서 열렸다. 올해로 20주년을 맞이한 추모제향에는 지승 스님(총관), 한용택 군수(초현관), 이인석 문화원장(이현관) 등이 참가했다.

생활불교조계종 영등포교도소서 백중법회



한국생활불교조계종(총무원장 도선)은 9월 3일 영등포교도소에서 수행자 조상영기전도 백중법회를 봉행했다. 이날 총무원장 도선 스님, 포교부장 기증 스님 등이 수행자들에게 보내고픈 마음을 공양했다.

·빙의 퇴마 최면을 전수합니다

빙의 치유

●영을 직접 불러 누구인지? 무슨 원인인지? 소원이 무엇인지? 천도

전생체험

●원통한 인간의 인과 응보와 원인을 찾아 업장을 소멸하고 사업자 사업자에게 사업성취를, 기도자는 기도성취를, 원인모를 악질증상 등을 좋은 운으로 돌릴수 있습니다.

치유가능한 증상들

- 빙의(귀신병), 퇴마, 우울증, 공황장애, 대인공포, 불안공포, 불면증, 만성두통, 게임중독, 약물중독, 급한성격, 집중력, 성적향상 등등
●빙의, 퇴마, 최면을 배우실분 ●자기최면, 타인최면을 배우실분
●자녀들의 성적향상을 위한 부모님
●포교활동에 꼭 필요하신분(성직자 특별우대, 종교불문)
●전수를 받고자 하는 분들은 대체의학, 침술, 최면, 빙의, 퇴마 등을 한곳에서 전수가능하며 전수 후에 각 시도 지사도 가능함.

- 최단기간 실전교육
●최면기술 누구나 가능합니다.
●어디 아프세요, 불치병 몽땅 상담하세요.
●하는 일마다 안풀리세요, 당신의 사주를 바꾸세요
●빙의(귀신병) 퇴마, 최면? 100% 전수 - 치유
●우울증, 공황장애, 산소수맥
●비염, 발기부전 특효

부산본부 : 부산시 북구 화명동 1388-8 지장사 ☎ 051)364-5586, H.P 010-3056-331

●부산교육 : 화, 수, 목 ●서울교육 : 금, 토, 일

한국 빙의 퇴마 최면 연합회 본부 지 장 사 현오 합장

부산광역시 북구 화명동 1388-8 (부산 지하철 2호선 화명역 2번출구 전자랜드 후문 앞) TEL 051)364-5586 / 010-3056-3315 HTTP://WWW.JIJANGSA24.ORG